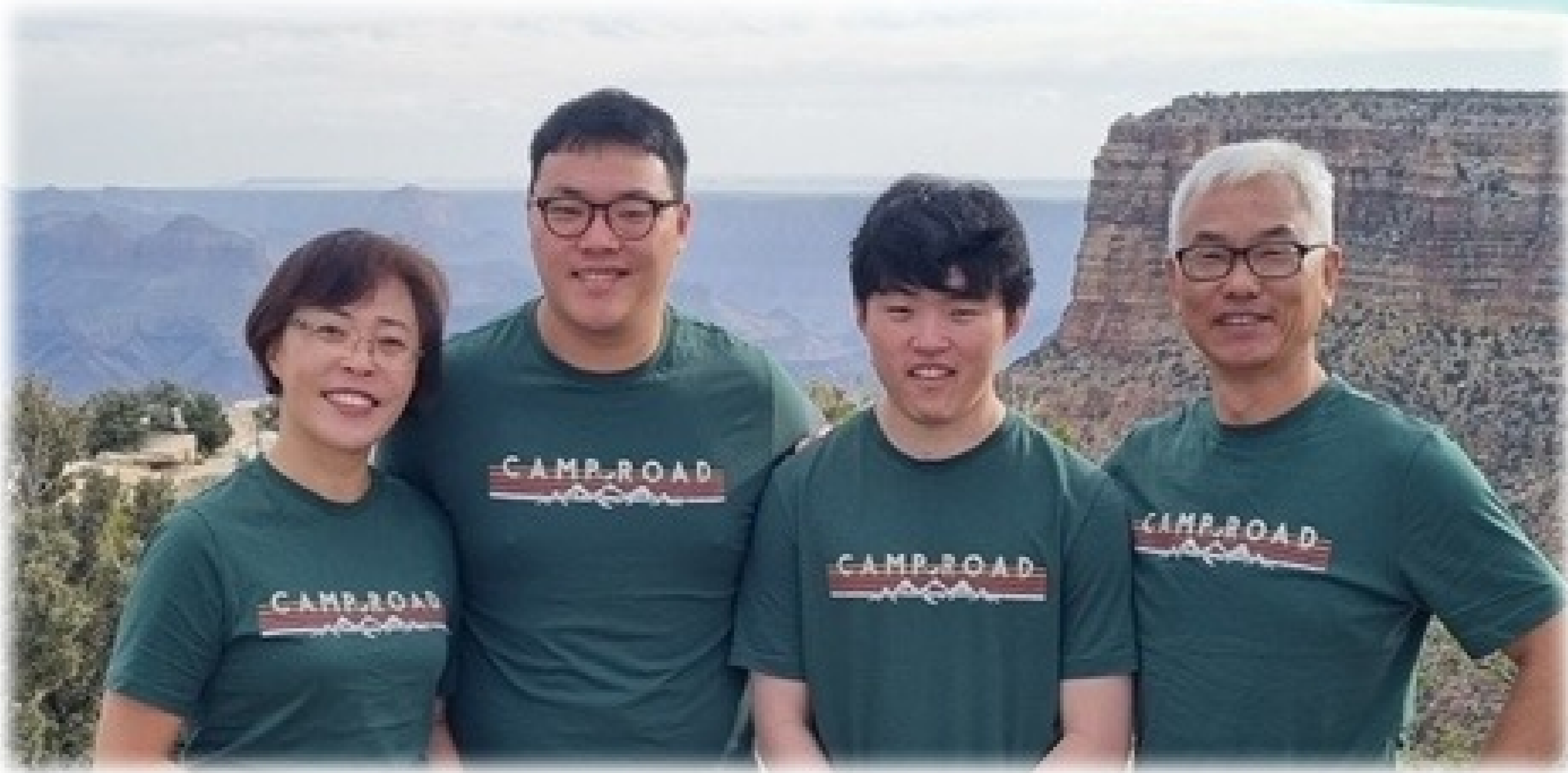


#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5월 31일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 오고, 누리고 싶은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과도 같은 5월, 꿈만 같았던 5월이 지나갔습니다. 4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는지요? 첫째 아들을 6년전에 미국으로 홀로 보내놓고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식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열흘 남짓이었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을 향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미국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가장 큰 이유는 둘째 아들 강현이의 졸업식이었습니다. 4년 동안 다닌 학교를 졸업식이 되어서야 와 보았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면서 입장하는 강현이를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찍 부모와 떨어져서 '분리 불안 장애'와 '뚜렛 증후군'으로 어려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어 하는 강현이를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교를 해야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았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강현이를 위한 시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강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떠 올랐습니다. 강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시고, 때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사실 저희는 해 준 것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진이 졸업식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현재 대학원 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와 강현이가 공부를 마친 학교를 가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강진이는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서 화학공학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기 위해 8월에 한국에 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다니 꿈만 같고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만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반드시 가 봐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랜드 캐년'으로 정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후 차를 빌려서 그랜드 캐년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자고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는 것도 저희에게겐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해 주시는데 과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느낌은 강진이와 강현이가 더 이상 저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다녀야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저희를 데리고 다녀줍니다. 운전도 강진이가 하고, 모든 예약이나 주문도 강진이와 강현이가 다~ 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젠 정말 어른이 되었더군요.



2003년부터 매년 같은 모습으로 찍어오던 사진을 2019년부터 찍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같은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려 하지 않는 전형적인 아들들이지만 이 모습의 사진은 스스로 찍고 싶어 합니다. 첫 사진과 비교하니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들로 변해갈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방문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27년만에 만난 멘토 목사님, 30여년 만에 만난 신학교 동기들, 처음 만난 선교사인데도 선교보고를 허락해 주시고 식사 대접을 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우간다에서 왔다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니며 관광을 시켜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분 한분을 기억하며 우간다에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헤어짐은 늘 익숙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뒤로하고 32시간에 걸쳐 우간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RCMS는 방학을 끝내고 두 번째 팀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교직원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2. 강현이는 한국으로 가기전에 알래스카에서 마지막 성경 캠프를 하고 있고, 강진이는 다시 연구와 학회 참석, 저희는 우간다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3. 6월 6일에 땅에 대한 재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4. 많은 분들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